

광주에 '공립 온라인학교' 생긴다

시교육청, 교육부에 제안...대구·인천·경남 등 4곳 최종 선정 교실·교사 갖추고 학생 없는 시간제 수업 제공...2024년 개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에서 주최한 '공립 온라인학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온라인 학교를 개교한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공립 온라인학교' 사업 모델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까지 채택됐다. 이번 교육부 공모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을 필두로 대구, 인천, 경남 등 총 4개 교육청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특별교부금 총 60억 원(교당 15억 원)이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사업 모델을 제시한 만

금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설립 단계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학습 혁명의 모형을 개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2024년 정식 개교를 목표로 한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과목 지원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학교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한다.

또 공립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운영한다. 학점이 인정되는 공립 각종학교로 운영된다. 학적 관리나 졸업 학력 인정은 학생이 재학 중인 원소속교에서 한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이뤄지며 대면 수업과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도 진행된다.

온라인학교에 배치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희망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고, 개별 학교는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 온라인학교에 의뢰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김중근 교육국장은 "이번 공립 온라인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기에 자부심이 매우 크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립 온라인학교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미래교육에 추구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간호학과 선후배 간담회 졸업생들, 취업 노하우 조언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의료 분야로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 활동을 위해 선배들의 값진 시간이 시간을 가졌다.

동강대 간호학과는 최근 교내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2022년도 간호학과 선·후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강대 학생취업위원회가 간호학과 재학생들의 직무 이해와 목표설정 위해 마련한 행사로 지역 중합병원 간호과(부장), 공공기관 관계자, 소방공무원, 교정직 및 학교·대학교원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실무자와 재학생 23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각 전문기관에서 리더자(간호부장) 뿐만 아니라 현직 동문 선배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동강대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취업 전 준비자세, 학습법, 전문직종에 필요한 자격과 구비 조건 등 꿈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동강대 간호학과 정은서 학과장은 "동강대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대학병원과 지역병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학교 및 소방서 등에서 모교의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선후배 간담회를 통해 재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대물림 프로젝트'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EPIS 공모사업 진행...성과발표·수료식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학과장 김영근)는 지난 2일 학교 현명관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2022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대물림 프로젝트' (책임교수 송기희) 성과발표 전시회 및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는 호남대학교 류혜숙 보건대학장, 광주시 무형문화재 최영자 의례음식장 등 4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해 명인들에게 전수 받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장아찌, 한식디저트, 다식구절판, 디저트 도시락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완도 특산품인 해조류 장아찌 세트와 비파 수제육포, 육포 오절판, 떡한과 모두 디저트세트 등 20여종의 개발상품과 현대적인 디저트 도시락을 출품했다.

특히 40여명의 수강생들은 그동안 남도 의례음식장과 명인들로부터 전수 받은 떡류와 음정류, 다과류와 부각 등 40가지 음식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담긴 '명인의 비밀 레시피' 책자도 발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강생들은 지난 5월 개강 이후 오후속 부각명인, 광주시 무형문화재 17호 최영자 의례음식장, 강덕순 다과연구소장, 천진암 정관스님 등 명인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장류, 떡·한과, 다식구절판, 음정류 등 총 30종의 레시피에 대한 실기수업과 장업 멘토링을 받았다.

송기희 책임교수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명인들과, 이들의 비법 뿐만 아니라 음식 철학까지 배우려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더해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통식품 기반의 성공 창업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2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식품명인 대물림 프로젝트는 조만간 '식품명인 대물림 연구회' 창립을 통해 전통식품의 현대적 계승, 상품개발, 창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문예창작과, 웹소설 창작 '성과'

'남주가 되었다' 14만 독자 확보 출판사 계약 등 인재 양성 요람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웹소설 창작 성과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일 광주대에 따르면 문예창작과는 2015년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웹소설 분야를 특성화해 유명 학생 작가들을 배출했다.

주목받는 웹소설 졸업생 작가는 2019년 연재 시작 후 180만 명의 독자를 확보한 '검술명가 막내아들'의 작가 황재평(필명·08학번 여성우)을 필두로 '역대급 야구천재가 되었다'의 작가이자 웹소설 창작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삼십춘기(07학번 박도형) 등이다.

최근에는 문예창작과 재학생들이 공개한 웹소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쪼꼬비(4학년 실명 미공개)는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서 최근 연재를 마친 'BL 웹드라마의 남주가 되었다'로 14만명의 독자를 확보했고 웹툰 연재도 확정되는 등 신인 학생 작가로서는 특출한 성적을 기록했다.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에서 85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아카데미 속 악마대공이 되었다'의 작가 Sizzle(4학년 김대현)은 최근 카카오페이지로 이적해 신작 '아카데미의 마피아가 되었다'를 발표했다.

두부두부(1학년 실명 미공개)는 '판타지 세상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법'으로 노벨피아 전체 베스트 10위권 내에서 72만 건의 추천 수를 기록하며 절찬리에 연재 중이다.

이외에도 김나영(2학년), 김자은(2학년) 씨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다.

쪼꼬비는 "현직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는 교수로부터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광주대 문창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씨는 "광주대 문창과만큼 웹소설 창작 지망생들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학과는 없다고 주변 웹소설 작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한다"면서 "대입 수험생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박차

1차년도 진도 점검 워크숍...경희대 등 사업단 전문가 참여

동신대학교가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산·학·연·관 협력 체계 중심의 지역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동신대에 따르면 동신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단(단장 나창수 교수)은 최근 '경협 자·극·진단 원천기술 기반 ICT 접목 침치료 융합시스템 개발' 과제에 대한 '1차년도 진도 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사업단에 참여 중인 동신대, 경희대, ㈜리파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경대,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교수들과 연구원, 참여 학생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대학과 기관별로 1차년도 사업 내용과 연구 진행 현황을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동신대 마이크로바이옴에 이질사업단(단장 나창수 교수)과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차세대 응용 오믹스 분야 과제'를 수행 중인 사업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협 자

극·진단 원천기술 기반 ICT 접목 침치료 융합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사업단은 바이오·의료기술연구의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를 열고 'Computed tomography(CT)의 바이오분야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의융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전장수 교수를 초청, '골관절염 발병의 분자 메커니즘(Molecular mechanism of osteoarthritis pathogenesis)'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골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연구 활동도 활발하다. 동신대 선도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 교수)와 마이크로바이옴엘에이징 사업단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전문가인 제주대 생명공학부 윤노타 씨와 교수(제주대 생명공학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갖고 '비위 조절기반 Gut-Brain 시스템 제어 한의 치료기술 개발'과 '마이크로바이옴 엘에이징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